

#초월 번역 완료

SK바이오팜이 '증권 시장 상장 전, 처음으로 발행하는 주식을 한정 판매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몰렸다. 하반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대어들이 줄줄이 상장에 나서면서, 증권 시장 데뷔를 위해 자신의 스펙과 성적을 공개하는 '증권계의 오디션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상반기 증시를 노크했다가 한발 물러섰던 기업들도 SK바이오팜의 청약 광풍을 지켜보며 상장 재도전에 나서는 상황이다.

아하, 그러니까 기업이 증권 시장에 상장을 원하거나 투자 유치를 희망하면, 먼저 기업공개(IPO)를 통해 내부 상황과 보유 주식을 투자자에게 오픈하고, (첫)주식 구매를 원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미리 돈(증거금)을 받고 주식을 사전에 배정해주는 청약 절차를 밟는게 공모주 청약이었군! 😊

그러니까 특급 신인을 발굴해 대세 스타로 키우듯, 증권계의 오디션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원석을 발굴하는 과정인 셈! 이거 이거, 나도 빨리 NEXT SK바이오팜을 찾아봐야겠는걸!? (총총 🐼🐼)

·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①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함. ②

· 주식 공모

기업공개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청약자를 구하는 것. 주식을 공모할 때에는 현재의 기업가치를 고려하여 주식의 발행가격을 정함.

· 주식 상장

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지정하는 일.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인들이 해당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음.

먼저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용어 몇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¹⁾주식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기업공개(IPO)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²⁾주식을 공모합니다. ⁽³⁾투자자들은 이때 공모주에 청약함으로써 주주가 됩니다. ⁽³⁾공모절차가 끝난 주식은 머지않아 증권거래소(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그때부터 다른 주식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IPO와 상장을 동일한 개념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IPO와 상장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IPO를 통해 공모한 주식에는 시장성과 유동성이 확보되어야만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소 상장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죠. (참고로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기업공개만 하는 것을 프리IPO라고 부릅니다.)

공모주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첫날 공모가의 최대 26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 상장시 공모가와 시초가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저같은 일반투자자는 기업공개 및 주식공모시 청약을 통해 공모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식공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 공모주 청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